

이기는 삶

조직이 원하는 사람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이력서를 내고 나면 면접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회사는 필요한 사람을 엄선하여 채용한다. 그런데 면접은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찾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다. 면접은 기본소양을 알아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 해결 등의 기본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이 회사에서 쓸만한지를 확인한다.

그다음으로 인성, 영어, 프레젠테이션, 토론, 학습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학력에 대체가능하고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이 우선 채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물론 회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원한다. 인성과 실력이 모두 뛰어나면 더욱 좋고 일을 맡기면 틀림없이 해낼 사람을 원

한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회사가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한가지가 아닌 여러 업무를 해내는 사람은 더욱 가치를 인정받는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누수를 막아 줄 수 있고 어떤 업무를 맡기더라도 가까이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단순히 월급을 받는 만큼 일하는 사람이 아닌 사명감을 가지고 조직에 기여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다. 제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개인이나 집안 사정을 우선하는 사람은 조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조직은 어지간한 개인이나 집안일을 뒤로하고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원하는다.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직속 상사가 시키니 마지못해 일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그런 사람은 경계 대상

1호다. 언제라도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돌출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업무능력이 학력에 비하여 떨어지거나 능력은 있으나 업무를 완성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조직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다.

이상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회사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에는 어느 때보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회사가 진짜 원하는 사람에 대한 답은 어느 때보다 냉정한 시각으로 깊게 고민해야 한다. 월급을 주는 이가 월급을 받는 이에게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요구받는지 명확히 알아야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보이기 때문이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고, 핸들을 돌리는 대로 오차 없이 움직여 주는 자동차와 같이, 경영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는 사람이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이다. 회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한다. 시키면 하는 사람, 목표를 주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답을 내는 사람을 원한다. 그러므로 인성이 갖추어진 예측이 가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 조직은 학력이 좋고 일 잘하고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보다는 경영자의 편이 되어 주는 사람, 조직에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 조직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다.*

영적 상징과 꿈 <28>

부제: 中에 대하여 3

지난 글에 이어 도덕경에 등장한 中(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덕경(道德經) 1장 2절

원문]

無名天地之始 무명천지시지
有名萬物之母 유명만물지모

무명(無名)은 천지의 시원(始原)이요
유명(有名)은 만물의 어미이다.

풀이]

무명(無名)은 말 그대로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으니,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이름을 부를 자 따로 없고, 그 이름으로 불리워질 자 또한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즉,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주(主)와 객(客)이 나누어있지 않은 상태, 모든 것이 '나'로서 하나인 상태이니 이름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이름이 없는 세계 즉, 무명(無名)의 세계는 온 우주가 하나님 한 존재로 가득 찼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마귀 육에 사로잡혀 천지만물의 형태로 찢어져서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원(始原)의 우주기에 노자는 이를 천지(天地)의 '시(始)'라 표현한 것입니다.

무명(無名)은 하나님만 존재하는 단일신(神)의 세계, 무극(無極)의 세계입니다.

반대로 유명(有名)은 말 그대로 이름 있음이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자와 불리워질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이름을 가진, 온갖 것들로 분열된 그런 세계입니다.

너와 내가 있는 세계, 모든 것이 개별 개체로 갈거리 찢겨진 세계가 바로 유명(有名)의 세계입니다.

유명(有名) 즉, '이름 있음'으로 현재의 천지만물(天地萬物)이 탄생했으니, 노자는 이를 일컬어 萬物之母(만물지모) 즉, 만물을 낳은 어미(母)라고 한 것입니다.

유명(有名), 이것이 바로 마귀 신이 무명(無名)의 세계, 무극(無極)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만든 태극(太極)의 세계 즉,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태극(太極)의 세계는 이간자 하나님의 등장으로 황극(皇極)의 세계로 재통합되기 전까지만 지탱될 한시적 수명의 우주입니다.

도덕경(道德經) 제 11장

원문]

三十幅共一轂 삼십폭공일곡
當其無有車之用 당기무유차지용

서른 개 바퀴살이 한 바퀴통에 모이니,
그 중심의 텅 빈 때문에 수레의
유용함이 있게 되고.

풀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中(중), 만물의 텅 빈 중심(中心)을 직설로 논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바퀴살과 그 테두리가 바퀴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의식의 내가 주체요, 주인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텅 비어있는 중심의 바퀴통 때문에 바퀴의 존재의미가 있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바퀴를 회전시켜 굴러가게 하는 본질적 기능은 땅에 닿는 바깥 부분이 아니라 가운데 텅 빈 중심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지요.

존재의 본질은 겉으로 드러난 외피(外皮)에 있지 아니하고 중심(中心)의 도(道)

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의식'의 '나'는 실은 참 나, 진짜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바퀴살 같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무의식의 층, 인간의 내면 중심에 숨어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주인공, 진짜 나라는 통찰로 필연코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경(道德經) 제 5장

원문]

天地之間 천지기간
其猶橐籥乎 기유타우약호
虛而不屈 허이불굴
動而愈出 동이유출

천지의 사이는,
커다란 풀무와도 같아서
속이 비었으나 쇠하지 tnr않고
움직일수록 더 내놓는다.

풀이]

노자는 천지를 거대한 풀무에 비유하며 하늘과 땅 사이(間)의 거대한 텅 빈 공간 전체를 11장의 바퀴통처럼 텅 빈 가운데, 텅 빈 중심(中心)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호방하기 그지없습니다만, 스케일이 좀 클 뿐이지 여기서 천지(天地)는 11장의 바퀴살에 해당하고 풀무의 텅 빈 속'은 중심의 바퀴통과 같습니다.

해서 윗 구절의 사이(間)는 텅 빈 가운데

데, 우주 만물의 중심(中心)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 간(間)은 두 문짝(門) 사이에 태양(日)이 가려져 있는 형상입니다. 좌우의 두 문짝은 껍데기요, 마귀이며 두 문짝 사이에 갇힌 태양이 하나님의 신, 자성(自性)입니다.

고로 두 문짝이 풀무에 해당하고 문(門) 사이의 태양이 풀무 안의 텅 빈 즉, 허(虛)입니다.

마귀 눈엔 마귀만 보입니다. 그에겐 두 문짝만 보이지 그 안의 태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텅 비어있는 허공(虛空)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불교의 공적영지(空寂靈知), 텅 빈 듯하나 영험한 지혜로 가득 찬 중심자리'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노자의 텅 빈, 허(虛), 불가(佛家)의 공(空)은 실제 허, 공이 아닙니다. 마귀에 속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텅 빈 풀무 안에서 무궁무진한 것이 나오는(出)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중심에 있는 태양 즉,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광명이요 창조력(創造力)이요 에너지인 것입니다.

도덕경(道德經) 1장 3절

원문]

常無欲以觀其妙 상무욕이관기묘
常有欲以觀其醜 상유욕이관기묘

무욕으로는 그 중심의 묘(妙)를 볼 것이며,
욕심으로는 그 변두리(醜)만 보리라.

풀이]

무욕(無欲)도 욕심(慾心)도 영(靈)이며 존재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가, 같은 내가 욕심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유욕(有欲)의 존재가 있고 무욕(無欲)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You must treasure the grace of God
은혜를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이 길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 Even though you have a lot or know a lot, you can't always have eternal life.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 Also, it does not mean that you have received a lot of grace.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 You must continue to cherish the grace of God.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나라는 것이 조종하는 생활을 벗어나야 한다.

▶ You must break free from a life controlled by self-awareness so that you can keep the grace of God.

하나님이 조종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그자가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자인 것이다.

▶ Only when you turn into a human controlled by God can you cherish the grace of God.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그릇만 되면 은혜를 얼마든지 부여줍니다.

▶ If you keep the grace of God, God pours out grace.

은혜를 받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다.

▶ Therefore, receiving the grace of God is not valuable.

은혜를 간직하는 생활이 귀한 것이다.

▶ The life of cherishing the grace of God is very precious.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를 죽이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 Above all, eradicating self-awareness is the first priority.*

- From the words of the Victor Christ.
by Alice

성경적으로 보자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으니 욕심=죄=죽음=죽음의 신=마귀신이 성립됩니다. 결국 욕심의 주체인 '나'는 그 자체로 마귀 종, 마귀 신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뒤집어 표현하면
“무욕(無欲)이 잉태한즉 의(義)를 낳고
의(義)가 장성한즉 생명을 낳느니라.”
가 됩니다.
무욕=의(義)=생명=생명의 신=하나님 이란 말이니, 무욕(無慾)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으로 거듭난 나입니다.

불교의 방하착(放下)의 근본도 같습니다. 내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욕심의 신(神)인데, 욕심이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습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나' 자체를 내려놓아 무욕(無欲)의 내가 등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나 불경적으로나 무욕(無欲)이 하나님이요, 유욕(有欲)이 바로 마귀 신입니다.
그러나 유욕(有欲) 즉, 마귀 내가 보면 껍데기(醜):오만 받다 했습니다.

돼지 눈엔 돼지만 보입니다. 자신과 같은 주파수의 존재, 자신과 같은 영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눈에 껍데기만 보

인다면 껍데기가 바로 마귀 신의 총입니다.

반대로 무욕으로 받는다 것은 무욕'이 받다, 즉 하나님 내가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하면 묘(妙)를 받다 했습니다.

묘(妙)는 껍데기(醜):오의 반대이니 자연히 중심(中心)을 뜻합니다.
파자(破字)로 보아도 여(女)는 영적 처녀의 상징이자 안쪽, 속(內)을 뜻합니다. 소(少)는 작다는 뜻과 함께, 점 세 개로 이루어졌으니 잠재적으로 삼수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합쳐보면 묘(妙)는 내면에 있는 영적 신부, 내 중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눈에 중심이 보인다면, 중심(中心)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노자는 이 구절을 통해 만물의 껍데기, 표층은 마귀의 총이요 만물의 중심(中心)에 하나님 즉, 도(道)가 자리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야
“우주 만물은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이라는 이중구조를 하고 있다.”
는 이긴자의 선언에 의해 비로소 완성된 형태로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